

예수성심성월 6



산호세 한인 순교자 성당 정심성가대 예수성심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주 제:	“살아있는 믿음”	“연중 제 9 주일”	2008년 6월 1일
복음 대상:	마태 7,21-27	신명 11,18.26-28.32	로마 3,21-25 나.28

주님의 날로 시작하는 예수성심성월의 첫날입니다.

성경을 읽으며, 강론을 들으며, 기도를 하면서, 전례 중에, 일상생활에서 그리고 형제자매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감동을 받을 수 있고, 주님께서 현존하신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과연 신앙생활이 벅찬 감동으로만 이뤄질까요? 감동에 따른 결실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무수히 많은 ‘주인들’과 적당히 타협을 하고, 현란한 언변을 뽐내며 자신과 형제자매들을 속이고 심지어 하느님까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행여나 사람들에게겐 통할지 모르나 주님께는 통하지 않음을 명심합시다.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말을 듣고 그대로 실행하는 사람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고 하느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복음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말 만으로야 뭣을 못하겠습니까! 말만 떠벌일 것이 아니라 믿고 고백한 것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합니다. 세례 때 “믿습니다.” “끊어버립니다.”라고 했습니다. 믿고 끊어버림에 흔들림 없도록 합시다. 그 약속에 신용불량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는 중간이나 일부만 믿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든지 불신이든지 둘 중의 하나입니다. 미지근하면 우선은 좋을지 모르나 뜨겁거나 차지 않아 입에서 뱉어지지 않는(요한 묵시록 3,16)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저 듣기만하여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되지 말고”(야곱 1,22), “믿음에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죽은 믿음임”(야곱 2,14)을 명심합시다. (안동 이준건 신부님 강론중에서)

1. 성가대 소식

가곡의 밤에 초대

오랫동안 김 인숙 세실리아 지휘자님이 활동하시던 마스터 코랄 합창단이 “봄, 여름, 가을 그리고 겨울”이라는 주제로 정기 발표회를 6/7 Sacramento 에서 6/14 은 San Francisco 에서 있고, 6월 15일에는 Los Altos 에 있는 “주 사랑 교회”에서 저녁 7시 30 분에 발표회를 할 예정이오니 많은 성원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장소;

+ 복음 [마태 7,21-27]



“나더러 ‘주님, 주님’ 하고 부른다고 다 하늘 나라에 들어 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들어 간다. 그 날에는 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주님,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 내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말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때에 나는 분명히 그들에게 ‘악한 일을 일삼는 자들아, 나에게서 물러가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고 말할 것이다.”

예수성심의 약속

1674년 성녀 말가리다 마리아 알라콕이 성체조배를 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 성심을 열어 보이시고 죄인들의 냉담과 배은망덕을 탄식하시면서 "적어도 너는 온갖 힘을 다하여 죄인들의 배은을 보속하라"고 부탁하시면서, 그방법으로 자주 영성체하고 매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할 것과 성시간을 가질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다음의 약속을 하셨다.

- 내 성심을 공경하는 자들의 지위에 요긴한 은총을 준다.
- 저들의 가정에 평화를 준다.
- 저들의 모든 근심 걱정중에 위로를 준다.
- 저들이 살아 있을 때와 특히 임종시에 저들의 의탁이 될 것이다.
- 저들이 경영하는 모든 사업에 풍성히 강복할 것이다.
- 죄인들은 내 성심에서 무한한 인자의 샘과 바다를 얻을 것이다.
- 열심한 자는 빨리 완덕에 나아갈 것이다.
- 내 성심 상분을 모시고 공경하는 집안에 강복할 것이다.
- 사제들에게는 극히 완악한 마음이라도 감화시키는 은혜를 줄 것이다.
- 내 성심 공경을 전파하는 사람들의 이름을 내 마음에 새겨 없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 누구든지 9개월 계속하여 첫 금요일에 영성체하는 사람에게는 마지막 통회의 은혜를 주어 은총 지위에서 죽게할 것이다.



1분 명상

" 고마운 일만 기억하기, "



이상하게도 남에게
섭섭했던 일은 좀처럼 잊혀지지 않는데,
남에게 고마웠던 일은 슬그머니 잊혀지곤 합니다.
반대로 내가 남에게 뭔가를 베풀었던 일은
오래도록 기억하면서, 남에게 상처를 줬던 일은
쉽사리 잊어버리곤 합니다.
타인에게 도움을 받거나 은혜를 입은 일은 기억하고,
타인에 대한 원망은 잊어버린다면
삶이 훨씬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고마운 일만 기억하고 살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 뤼귀룽의 《한걸음 밖에서 바라보기》 중에서 -

* 고마운 것은 따로 구별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고맙지 않은 것도 고맙게 받아들이면
고마운 것이 됩니다.
모든 것을 고맙게 기억하면 무엇보다도
자기 마음에 평화가 옵니다.
그럴 일이 없어보이는데도 얼굴에 늘 미소가 듭니다.
그의 인품에 감사와 기쁨의 향내를 풍깁니다.